

유괴예방지침

아이들은 신학기를 맞이하게 되면, 새로 만나게 될 친구, 선생님 그리고 새 학용품 등으로 설레임이 가득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. 새로움에 들뜨고 한편으로는 낯선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칫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소중한 우리의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.



신학기를 준비하면서 들뜨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『신학기철 유괴예방지침』을 숙지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??

- 등·하교시에는 혼자 다니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밝고 환한 큰 길로 다닌다.
-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걸거나 놀지 않고, 인적이 드문 길로 다니지 않는다.
- 이름, 전화번호 등은 눈에 띄는 곳에 적어두지 않고, 옷 안, 신발 안, 가방 안쪽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써둔다.
- 모르는 사람에게 이름, 사는 곳,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.
-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않고,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는다.
-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로 걷고, 도로와 떨어져서 인도 안쪽으로 걷는 습관을 기른다.
- 선생님, 부모님과 함께 통학로의 우범지역과 사각지대를 파악해 둔다.
- 누군가가 따라오면, 낯선 사람을 피해 슈퍼나 문방구 등의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한다.
- 누군가가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면 “안돼요! 싫어요! 도와주세요!”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, 가방, 책 등의 소지품을 던져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주위 사람에게 알린다.



보건복지가족부



어린이재단
실종아동전문기관

실종아동전문기관 02-777-0182 www.missingchild.or.kr